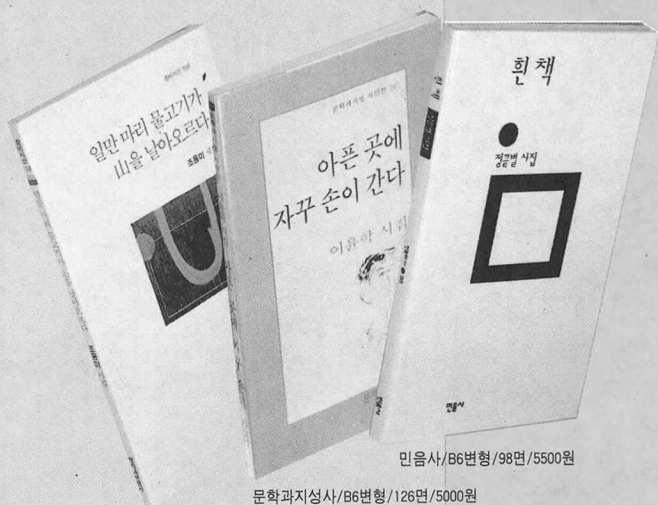


말하기의 세가지 층위

젊은 시인들이 그리는 내면의 사생활

박기수 | 문학평론가



창작과비평사/B6변형/118면/5000원

문학과지성사/B6변형/126면/5000원

민음사/B6변형/98면/5500원

조용미의 시집 《일만 마리 물고기가 산을 날아오른다》(창작과비평사)에는 곳곳에 길이 있다. 그 길은 온 산야와 온 절집을 떠돈다. 그의 시선은 나무와 숲, 바람과 바다에 머물고 있지만 우리는 안다. 그 모든 길이 그에게로 향하고 있음을. 자신의 내부로 향하는 길을 찾기 위해 떠도는 그의 길들.

‘말함’으로 드러내는 ‘침묵’의 속내

그의 시는 “무엇이 있다 사라진 자리는 / 바라볼 수 없는 고요로 / 바글거린다”(《자리》)는 표현에서처럼 ‘있음’과 ‘없음’의 지독한 경계를 넘어서고 있다. 하여 그의 시가 단호한 어조로 ‘있음’을 이야기할수록, 그 사이사이 ‘있음’을 보이기 위해 ‘없음’으로 존재하는 것들의 흔적이 적오 속에서 살아나는 것이다.

그는 길 위의 행보를 생각한다. 한곳에 머물 것 같지 않으면서도 결코 서두르지 않는 그의 속도를 따라가다 보면, 그가 자신을 따라 오는 길의 흔적을 지우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지금껏 그가 걸 어온 길은 ‘자신의 오늘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안개 속에서 나는 또 다른 이정표를 찾아 두리번거린다”(《느티나무 몸 속에는》)에 드러난 것처럼 ‘새로운 떠남을 재촉하기 위해 지워온 길’이기 때문이다.

‘없음’으로 ‘있음’을 드러내는 일은 낯설지 않다. 그러나 조용미의 시에서처럼 ‘있음’으로 ‘없음’을 드러내며, ‘말함’으로서 ‘침묵’의 속내를 드러내는 일은 드문 일이다. 그것은 그의 시가 부단히 버리고 떠나는 궁극에 이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길을 찾고 그 길을 다시 지움으로써 증거하는 ‘없음’의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는 의미다. 귀가 현명하지 못한 필자는 조용미의 시를 통해, ‘없음’에서 다시 출발하는 진정한 ‘있음’ 혹은 ‘생명’에의 회구를 가능케 할 뿐이다.

이운학의 시는 내밀한 상처다. 오래된 통증이다. 상처는 그에게서 혹은 그를 둘러싼 일체의 것들에서 시작해 그를 온통 감싸고 있다. 그는 선불리 상처의 치유를 말하지 않는다. 다만 상처의 깊이를 가능하고, 그 깊이만큼 상처를 나눈다. 《아픈 곳에 자꾸 손이 간다》

(문학과지성사)는 그 나눔의 기록이다.

상처를 지닌 것들에 대한 연민과 그것이 자기연민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한 자기파괴. 자기파괴는 상처를 덧내기에 이르고 마침내 “누군가에게 / 내 상처가 천당이 될 수 있기를”(《늙은 참나무 앞에 서서》) 기원한다. 개미가 추울까봐 돌보기를 비취주는 행위가 결국 개미를 타죽게 만든다는 인식(《연민》), 화자 자신이 자신을 떠났던 것들조차 지우지 못하고 가파른 벼랑에 설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자기 인식(《눈보라》), 그럼에도 한번도 열리지 않는 숨은 길을 걷는 의지적 자세(《무화과》).

평자들은 이 시집이 ‘올해의 가장 처절한 내면의 사생활’라고 평가하지만, 오히려 그 처절함으로 버티며 상처받은 것들끼리 보듬고 위무하려는 자세 역시 주목해야만 한다. 그의 말처럼 아픈 것들을 향한 시선은 이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며, 그것이 대상과 자기 자신의 상처를 보듬는 길임을 시인은 아는 까닭이다.

‘농’과 ‘되풀이’의 미학

정끝별의 《흰 책》(민음사)은 시인의 말처럼 ‘농’과 ‘되풀이’의 미학을 중심에 놓고 있다. ‘농’은 ‘상처의 고름(膿)’이며 동시에 경쾌한 ‘장난’(弄)이다. ‘되풀이’ 되는 것은 ‘반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 반복하고 싶은 즐거움, 편안함, 즉 반복이든 반복이든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이다.

그녀의 이번 시집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살아있음의 다양한 ‘되풀이’와 그 과정에서 쏟아지는 ‘농’(膿, 弄)의 흔적들이다. 《속 좋은 떡갈나무》(동지1) 등에서 곱게 구사되는 동일음운의 반복과 같이 드러나는 ‘되풀이’ 외에도 그녀의 시각이 일상의 사소함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점도 ‘되풀이’라는 맥락에서 주목해 볼 일이다.

일상의 가장 대표적인 코드는 ‘되풀이’가 아닌가. 그녀의 ‘되풀이’와 ‘농’이 보여주는 춤사위는 결국 ‘살아있는 것들을 살아있게 하려는 몸짓’이며, 동시에 ‘상처받은 것들을 치유하고 위무하려는 노력’에 다름 아니다. 그것이 되풀이의 또 다른 코드인 경쾌한 리듬감으로, 사소하고 하찮은 일상의 건강한 생명력으로 육화되고 있는 것이다.●